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12호 [무게 제24625호] 주체103(2014)년 7월 31일 (목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 인사들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네발로동자농민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네 발로동자농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나라인 단 비축제가 24일 이 나라를 방문하고는 우리 나라 평성시천선대포단 단장인 평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안명옥에게 전달하였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선군절과 공화국 창건 66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크림주제사 상군구협회 위원장파 에쓰카 물니아유한책 임회사 총사장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 활동소식을 21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 보도망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고산과 수능장을 현지지도하시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전방대에 오르시여 농장의 전경을 무감하시였다. * * * 그이께서는 농장에 새로 꾸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면서 1947년에 창설된 고산과수능장이 조선에서 손꼽히는 과일생산기지로 전변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 * * 그이께서는 고산과수능장을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로, 무용도원으로 꾸밀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 * * 새로 건설한 쇠그물올타리공장을 돌아보시였으며 사과나무들의 생육상태를 알아보시였다. * * * 파수에서 세계적인 페전을 취했다. * * * 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까운 년간에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정해주시고 농장에 필요한 물건기재와 설비들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 * * 중국의 《길림신문》, 홍콩 방송 위성 TV방송, 국제방송망, 동북방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 * * 중국의 《로닝일보》, 캄보디아신문 《꼭 손때피엠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편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1521호기갑소의 성전강고물공장과 수지판직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 조선인민군 제324대련함부대 예술선전대 공연을 지도하신 소식,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남자축구결연경기를 지도하신 소식을 올렸다. * * * 중국, 캄보자, 브라질, 네발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 * * [조선중앙통신]

민족사에 특기할 절세위인들의 선군승리력사

남조선 각계가 칭송

【평양 7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미제침략자들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은 7.27의 위대한 승리와 더불어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의 백두백승의 력사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선군명도업적이 찬연히 आरो새겨져있다. * * * 하기에 남조선 각계는 선군의 기치높이 혁명명도의 전로정을 자랑찬 승리로 수놓아오신 절세위인들을 우러르며 칭송의 목소리를 터치고있다. * * * 한 통일운동단체원은 1950년대에 우리 공화국이 미제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위대한 전승을 이룩할수 있었던 결정적요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 * * 지난 조선전쟁에서의 이복의 승리는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시고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백두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명도의 결과이다. * * * 전쟁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사상과 전략의 대결이다. * * *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교전쌍방의 경제력이나 군사적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가하는 군민의 정치사상적 준비상태 특유의 지략을 펼치고 군민을 명솔하는 명수의 명도력에 의해 좌우되는것이다. * * * 한 군사전문가는 자기의 글에서 김일성주석님의 군사적재정은 미국의 코대가 꺾여진 지난 조선전쟁때 온 세상에 더욱 널리 알려졌고, 주석님은 뛰어난 지략과 평철한 전법으로 미제를 타승하신 강철의 명장이시며 동서고금 력사가 알지 못하는 희세의 영웅, 불세출의 위인이시다고 칭송하였다. * * * 참지 《말》은 김일성주석님의 담력과 배짱, 천재적지략이 있어 무장간첩선 《루에블로》호사건과 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 등 북미사이의 모든 대결은 언제나 미국이 북에 무조건 사죄하고 항복하는것으로 끝났다고 썼다. * * * 대전의 한 시민단체원은 토론회에 특은 명도나 인구면에서 크지 않지만 미국과의 대결에서 현승하면서 세계를 뒤흔들고있고, 이처럼 막강한 북의 위력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것인가, 북이 다른 나라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명도의 결과이다. * * * [조선중앙통신]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천만군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분출시키자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곳곳이 이어나가자

전국당책임일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출발모임 진행

【해산 7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은 나라에 혁명전통교양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속에 전국당책임일군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이 시작되었다. * * *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린 력사의 땅에 대한 편답을 통하여 답사행군대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광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백두불굴의 혁명정신과 위력한 정치사상방법들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된다. * * * 전국당책임일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출발모임이 30일 오전보천투승리기념탑앞에서 진행되었다. * * * 참가자들은 먼저 보천보전투승리 기념탑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 * * 모임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가 발언하였다. * * *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보천보전투승리 기념탑앞에서 전국당책임일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출발모임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에 혁명전통교양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길의 곳곳이 이어가실 철석의 명의를 지니시고 전국당책임일군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조직해주시였다. * * *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전군, 전민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선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이고있는 시기에 전국의 당책임일군들을 백두산지구로 불러주시는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출발모임이 갖는 의의와 사의의 포석이 된다. * *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전국당책임일군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라고 답사행군 참가자들에게 우리 대한대원수님들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신 참가증을 수여하도록 뜨거운 마음을 베풀어주시였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별한 관심과 기대속에 진행되는 이번 전국당책임일군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은 수령의 위대성을 알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더욱 높이고 튼튼히 무장하며 항일유격대지시인기풍, 생활기풍을 확립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창시하신 영광의 땅이며 온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온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새겨져있으며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하려는 우리 당의 높은 뜻이 깃들여있다. * *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책임일군들의 공기로 마음을 셋고 백두의 칼바람을 실감하며 백두의 혁명정신이야말로 조선혁명의 영원 불멸한 생명선이라는것을 뼈와 살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에 혁명전통교양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길의 곳곳이 이어가실 철석의 명의를 지니시고 전국당책임일군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조직해주시였다. * * *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전군, 전민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선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이고있는 시기에 전국의 당책임일군들을 백두산지구로 불러주시는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출발모임이 갖는 의의와 사의의 포석이 된다. * *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전국당책임일군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라고 답사행군 참가자들에게 우리 대한대원수님들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신 참가증을 수여하도록 뜨거운 마음을 베풀어주시였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별한 관심과 기대속에 진행되는 이번 전국당책임일군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은 수령의 위대성을 알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더욱 높이고 튼튼히 무장하며 항일유격대지시인기풍, 생활기풍을 확립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창시하신 영광의 땅이며 온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온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새겨져있으며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하려는 우리 당의 높은 뜻이 깃들여있다. * *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책임일군들의 공기로 마음을 셋고 백두의 칼바람을 실감하며 백두의 혁명정신이야말로 조선혁명의 영원 불멸한 생명선이라는것을 뼈와 살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에 혁명전통교양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길의 곳곳이 이어가실 철석의 명의를 지니시고 전국당책임일군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조직해주시였다. * * *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전군, 전민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선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이고있는 시기에 전국의 당책임일군들을 백두산지구로 불러주시는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출발모임이 갖는 의의와 사의의 포석이 된다. * *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전국당책임일군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라고 답사행군 참가자들에게 우리 대한대원수님들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신 참가증을 수여하도록 뜨거운 마음을 베풀어주시였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별한 관심과 기대속에 진행되는 이번 전국당책임일군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은 수령의 위대성을 알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더욱 높이고 튼튼히 무장하며 항일유격대지시인기풍, 생활기풍을 확립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창시하신 영광의 땅이며 온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온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새겨져있으며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하려는 우리 당의 높은 뜻이 깃들여있다. * *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책임일군들의 공기로 마음을 셋고 백두의 칼바람을 실감하며 백두의 혁명정신이야말로 조선혁명의 영원 불멸한 생명선이라는것을 뼈와 살로

승리의 7.27을 크나큰 환희와 격정속에 뜻깊게 경축한 락원기계 연합기업소의 로동자들이 상반년 굴착기와 대상설비생산계획을 수행한 기세드높이 혁신의 한길로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 * *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 * * 락원의 로동계급은 지난 상반년간 자기들앞에 맡겨진 1m 유압식굴착기와 1.5m기계식굴착기, 3m산소분리기생산계획을 힘차게 수행하고 유압식굴착기뿔뿔을 비롯한 많은 굴착기부속품들을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 * * 연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가벌철첩하였던 전화의 나날 락원의 10명 당원들이 발휘한 결사판

락원의 10명 당원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 * *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생산의 선봉정신으로 생산에서 편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 * *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나갈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락원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굴착기와 대상설비생산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 * *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는 생산의 선봉정신으로 소제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작전을 잘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주강직장을 비롯한 소제생산단위들에서 소제생산에 앞세우는 것과 함께 대상설비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다. * * *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는 파장이상 일군들이 한계 단위의 맡고나가

언제수문기동 및 다리보, 상판설치공사 결속

희천 9호발전소건설장에서 * * * 희천 9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평양시에서 편일 8개 언제수문기동과 다리보 및 상판설치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창조하였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 * * 《물해에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 * * 올해 1월말 강추위속에서 어려운 좌안지대의 가물막이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 락원에서는 2월말부터 굴착공사에 착수하면서 8개 언제수문기동구간에 대한 콘크리트기계준비작업도 동시에 내밀었다. * * * 백중원, 최용수동무를 비롯한 락원의 지휘관들은 각대대력량을 좌안연계건설에 총집중시키는 한편 우안의 연계공사대의 경험을 살려 광차운반통에 의한 비력처리와 혼합물운반설비를 무반히 놓이면서 사상적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전문과 편지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전문과 편지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벨라루스공산당 전국집행위원회 상무위원회,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서기, 네팔공산당(통일)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지도자, 레바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만파렌맹련대생발전당 총서기, 몽골민주당 총서기, 방갈라데슈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수리아공산당(통일) 총서기, 수리아아랍민주동맹당 총서기, 수리아아랍사회주의 동맹당 총서기, 수리아아랍사회주의 자운동 총서기, 수리아의 공산주의자들과 중앙위원회 총서기, 캄보디아 크메르민주당 위원장, 캄보디아인민당 위원장, 팔레스티나 해방민주주의전선 총서기, 팔레스티나인민투쟁전선 총서기, <키르기스 엠>인민공화국중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파키스탄공산당 위원장, 인도네시아다양성당 전국지도자사회 총서기,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자사회 위원장, 총서기, 도이쉴란트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로므니아 사회주의선배당 위원장, 정의의 로씨야당 위원장, <로씨야의 공산주의자들>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로씨야인민족구권선 위원장,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마차르도당 위원장, 체코슬로바키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체코슬로바키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 새유고슬라비아공산당 총서기와 국제비서,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대변인(당수), 이탈리아통일공산당 총서기, 이탈리아 평화와 사회주의운동 총서기, 기네비제 개인민권당 총서기, 베네통사회주의당 위원장, 민주공화당 총서기, 민주공화당 제2인민당 위원장, 민주공화당 제1인민당 총서기, 에리트레아민주노동당 위원장, 에리트레아사회주의당 위원장, 도미니카공화국 독립운동 총서기, 메히코사회주의인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메히코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브라질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위원장과 국제비서, 브라질자유중국당 전국위원장, 부위원장, 캐나다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제1비서, 페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 우루과이3월26일운동 위원장이 전문과 편지를 보내어왔다.

또한 아랍사회부총당 부총서기, 이란이슬람교원당 부총서기, 공산당맹맹-조선공산당리사회 제1부위원장

장, 전련맹벨레비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벨라루스공산주의근로자당 중앙위원회 비서, 스위스 이탈리아 어지역공산당 정치비서, 슬로벤스프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에스빠나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관계비서, 가나인민민주당 부총서기, 에리트레아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김일성위정일기금리사회 공동리사장, 로씨야 엠.에.빠트니즈키명칭 국립아카데미아인속합창단 단장, 로씨야 21세기관련약단 단장, 세계평화리사회 위원장, 국제민주녀성평등 위원장, 국제반제조정위원회 총서기, 벨라루스가담학생청년조직 총서기,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 서기장,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전략위원회 서기장을 비롯하여 중국, 로씨야, 네팔, 레바논, 말레이시아, 만파, 몽골, 방글라데슈, 수리아, 캄보디아, 쿠웨이트, 타이, 파키스탄, 이란, 일본, 노르웨이, 단마르크, 도이쉴란트, 로므니아, 벨라루스,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벤스프, 체코, 프랑스, 핀란드, 벨스카,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슬란드, 이탈리아, 기네,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리비아, 베네, 세네갈, 민주공화, 튀니지, 우간다, 에티오피아, 메히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폴롬비아, 페루, 에파드르의 정계, 사회계,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소, 조선통일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전문과 편지를 보내어왔다.

전문과 편지들에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세계의 자주화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은 영원히 빛날 만년채보라고 전문과 편지들은 강조하였다.

전문과 편지들에서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혼을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한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캄보디아인민당 중앙위원회, 스페인의 공산당 위원장, 단마르크의 공산당 국제비서가 전문을 보내어왔다.

강의한 성품을 지니신 참된 애국자의 한생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여사의 서거일에 즈음하여

오늘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며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여사의 서거 82돌이 되는 날이다.

헤마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다함없는 경도의 정을 안고 강반석여사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 그리고 그이께서 지니신 강의한 성품에 대하여 다시금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머니에 대하여 녀성으로서의 실로 드물다고 할만치 강의한 성품을 지니고있었다고 하시면서 회고록에 이렇게 쓰시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보통 어머니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강의한 성품을 지니신 어머니에 대한 우리 수령님의 추억은 한없이 뜨거웠었다.

만경대에서 열두식구나 되는 큰 집안의 장손녀니로서 시부모님의 공내는 더 말할것도 없고 집안팎을 거두고 싶것이와 빨래, 걸뭇을 하고 낮에는 농사일로 진땀을 흘리며 나가 계시고도 언제 한번 주저앉았적 없으시었다.

그리고 김형직선생님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도와 만경대와 철물, 봉화터, 중앙, 프령, 무송 등 여러곳을 다니며 눈보라,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험한 령도 넘고 시련을 헤쳐가시던 날에 고생이한 고생을 다 겪으시면서도 그것을 락으로 여기신 어머니이시었다.

하기에 강반석여사님께서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서거하시었을 때 눈물을 보이지 않으시고 원수 일체를 친배배로 복수할 마음을 굳히시였으며 자식들을 혁명의 길로 떠미시었다.

평소에는 그렇게 부드럽고 인자하시였지만 엄동설한 친리길을 걸은온, 그것도 2년만에 만나보는 사랑하는 아드님을 하루밤도 재우지 않으시고 그날밤으로 다시 떠나보내신 강반석여사님의 용성깊은 사랑의 세계를 우리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랴.

녀사께서는 집안에 달려들어 만행을 저지르는 원수앞에서 분노로 가슴을 끓이시며 불레면 보라고 한 추들과 곱합합이 맞서싸워 늘들을 친롭게 하시었다.

이러한 강의한 성품을 지닌 녀사이시였기에 그처럼 쓸쓸한 녀성의 고독속에서도 서슴없이 아드님을 혁명의 길로 떠나보내시며 려사에 길이 전해질 말씀을 하실 수 있었다.

내가 보다 너는 이전보다 좀 달라졌다. 네가 쌀자루까지 지고다니며 어머니를 부양하게 될것을 나는 몰랐다. 알고있는 이 에미격정때문이었지, 너의 효성이 지극하니 고맙기는 하다면 그만한것으로 위안을 받을 내가 아니다. 부녀회를 늘이려고 무용서로 내 손목을 잡고 힘한 령을 넘어다님 때에 오늘 이런 위안이 내 발자구 그랬었나? 너에게는 더 큰일이 있다. 내 걱정은 말구 어서 네 갈길이나 빨리 가거라.

남반월의 길을 앞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기점골에 들리시였을 때 어머니의 병세는 더욱 위급하였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런 내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시었다. 이야기파에게 집안팎이나 자신의 병세가 화제에 오르면 얼른 마음을 지어버리고 다른 문제를 꺼내시었다.

그날 오래간만에 만난 아드님께 강반석어머니께서 하신 이야기는 유적대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광세봉선생과는 어떻게 손을 잡으려고 하는가, 근거지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등 정치문제가 전부였다.

참으로 강반석여사는 인류력사에서 일찌기 찾아볼수 없는 위대하고 강의한 어머니의 귀감이며 혁명가들의 심장은 어떻게 고동쳐야 하는가를 실존으로 보여주신 탁월한 녀성활동가이시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처럼 따뜻하고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받는 아드님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려는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신 강반석어머니께서 영원한 리비밀수도 있는 혁명의 길로 사랑하는 아드님을 떠나보내시자니 마음이 오죽했으랴.

사랑하는 아드님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싶으시어 문질주실것을 꼭 오레도록 바래워주시던 강반석어머니!

어머니의 마지막 그 모습을 회억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때의 모습은 차라리 어머니라기보다는 스승에 가까운 모습이었다고 후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사실 남반월정을 앞두고 집에 잡들리시였던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시어 방문을 나서시였지만 중환이게시는 어머니와 너무도 어려운 집살림을 두고 선통 결음을 옮길수 없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하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무거운 마음을 안으시고 집들메를 들고 또

진 광 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자카르타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당선자 조꼬 위도도 각하

나는 최근 귀국에서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당신이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셨다고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선-인도네시아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과 녀됨에 맞게 끊임없이 공고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의 앞으로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체103(2014)년 7월 29일 평양



가렬한 전희의 나날 몸소 이곳을 찾으시어 원아들의 학습과 생활을 따스이 보살펴주시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사랑을 가슴뜨겁게 새기고있다. -피현군 총련리 만경대혁명학원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불멸의 업적을 체득시켜

은를광산 초급당위원회에서 어머니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독보, 읽은책발표모임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어머니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당원들과 광부들속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었다.

말마천 청년광부에 나간 초급당위원회의 한 일꾼은 작업의 일환에 1940년대초부터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도적으로 맞이할수 있는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친리해안의 예지와 빛나는 령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해설담화를 진행하였다.

그날 청년광우안의 당원들과 광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시 사회주의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쇄멸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 굳은 결의를 다지었다.

로동농선원 심운섭

의미하며 인간완성에 도덕적완성이 매우 중요하기때문이다.

이 땅에서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 장장 수십년상이 흘렀다고 하여도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참가자들, 승리자들은 금은보화라도 바꿀수 없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보배들이며 조국청사에 천세만세 찬양되어야 할 혁명선열들이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참가자들인 전쟁로병들을 존대하는 기풍을 대를 이어 꽃피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철의 의지이다.

한데두세 세월이 흐를수록 전쟁로병들의 머리에 더욱 흰머리가 없는것을 세월로 가슴아파하시는분이 우리 원수님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어 전쟁로병, 승리자들을 중심으로 존대하는 문예는 혁명의 생산군단과 편린되는 문제인 동시에 위대한 령도와 전통을 더욱 고수하고 빛내이는 길이다.

참관단은 전쟁으로 전쟁로병들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자기 부모,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위하는 사심없는 위대하고 전쟁로병들을 존대하는 위대하는 인간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품은 후대들에 대한 말없는 교양사업이다.

전쟁로병들의 나이가 많은것을 늘 가슴아프게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듯 다스려주세요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는 우리 원수님!

그 은혜로는 태양의 품, 영성의 품에 온 나라의 전쟁로병들이 안겨산다.

단 한번 만나봐도 한생을 영광과 행복의 그 순간에 살게 하는 친리력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본사기자 량순

전쟁로병들이 안겨사는 위대한 품

어느덧 한해가 되었다. 혁명의 수도에서 성대히 거행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관식, 속포악회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리라!>,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연회, 그 모든 성대한 행사들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참석하시었다. 그뿐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전쟁로병들을 기립사건까지 찍는 영광을 되돌을 때 전희의 불비속을 헤쳐온 그들은 머리에 백발을 없었던것만 너무 기뻐 어린이가 되어버렸다.

은 나라는 승리자의 환희로 더더욱 꽃피어지고 세계는 부러움을 금치 못하지하였었다.

이것이 전승 60돐을 맞이하였던 지난날 우리 조국의 모습이었다. 경축열기는 오늘날도 식지 않았다. 영광의 그날을 언제나 소중히 안고 사는 온 나라 전쟁로병들의 가슴가슴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불같은 그리움으로 켈레고있었다.

동림군의 전쟁로병 안병욱할머니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편지로 알리었다.

《7. 27,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을 모시고 전승 60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던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도 간절히 붓을 들었습니다.

우리 로병들이 사랑의 한복에 안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던 그날의 우리 원수님의 따뜻한 인자하신 미소를 하루에도 몇번씩 그리볼수록 원수님께로 무작정 달려드는 마음 진정할수 없습디다.

이 늙은이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지 않지 말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아내게시라고 다정히 말씀하시던 품결에도 그리운 아, 우리 원수님!..>

은 나라 로병들모두가 영원히 잊지 못할 그날에 살고있다.

전쟁로병들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의 7. 27과 더불어 로병들이 안겨사는 위대한 삶의 품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자 한다.

* * * 전쟁로병들을 존대하는 기풍은

훌륭한 정치의 발전이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만이 승고한 의리의 화원을 꽃피울수 있고 위대한 인민을 기를수 있다. 전쟁로병들을 존대하는 기풍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치리념이었다.

무릇 전쟁로병들을 존대한다는것은 조국을 지켜싸운 영웅전사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그들의 혁명사상과 투쟁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을 의미한다. 전쟁로병들을 존대하는것은 혁명의 요구이며 혁명가들이 지나야 할 고상한 도덕리념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전쟁로병들에 대한 도덕리념을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신 결출한 혁명가, 숭고한 의리의 최고화신이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국해방전쟁참가자들은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여 인민의 의지를 지켜싸운 영웅전사들이니.》

나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렬한 싸움에서 미제의 무력침공을 격파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지켜낸 전쟁로병들, 조국의 자유와 독립, 후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전쟁로병들을 존대하는것은 후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혁명적리념이며 숭고한 도덕적의무이다.

이 나라의 전쟁로병들 한사람한사람을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삶을 빛나게 꽃피워주시 어머니장군님의 숭고한 도덕리념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도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적시고있다.

어느해인가 어머니장군님께서 전연부대의 군인회관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특별히 눈에 안겨드는것은 부대가 배출한 영웅들에 대한 소개판이었다.

가렬치절하던 전희의 나날 서울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영예

군인, 게다가 그들은 나이도 훨씬 들지 않았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 누구도 선통 결심을 내릴수 없는 문제였다. 일꾼도 안아오신 고귀한 결정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깊이 빛내이는 만년보물고, 려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정신과 위훈을 온 세상에 전해주는 승리의 기념비,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백송의 려사를 꽃피이 어갈 선념과 의지를 심어주는 승리전승교양의 중심지, 만미계교양당의 기념벽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전사들을 품에 안아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보살펴주시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고결한 의리를 잊지 않고 만약 준엄한 시기가 온다면 1950년대의 강도혁명영웅처럼 입에 수류탄을 물고 적진속으로 뛰어들것입니다.》

만사람을 격동시키는 진정이었다. 전쟁로병들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비결없는 의리의 세계를 전하는 감동깊은 화폭이 아니던가.

전쟁로병들에 대한 의리를 혁명가라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도덕적품성으로, 사회주의 위업수행을 위해 나서는 문제로 중시하시는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세상을 울리는 이런 진정을 안아오실수 있는 것이다.

위대한 령도, 위대한 령도자가 있어 전쟁로병들의 삶이 빛나고 민족과 혁명권과 그의 안해 전순회녀성을 모르는 사람은 다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갈피갈피에 비친 찬란한 해발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들은 다는 알지 못한다. 언제나가 일꾼들은 난감한 일에 맞닥들었다.

가렬치절하던 전희의 나날 원수의 격연에서 중상을 당하고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오랜 기간 문필활동을 벌려온 영예로운 혁명전사인 그의 안해가 군복을 입고싶다는 소망을 제기했기때문이었다.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영예

위해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발기하고 정력적인 령도와 원신으로 안아오신 고귀한 결정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깊이 빛내이는 만년보물고, 려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정신과 위훈을 온 세상에 전해주는 승리의 기념비,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백송의 려사를 꽃피이 어갈 선념과 의지를 심어주는 승리전승교양의 중심지, 만미계교양당의 기념벽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전사들을 품에 안아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보살펴주시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고결한 의리를 잊지 않고 만약 준엄한 시기가 온다면 1950년대의 강도혁명영웅처럼 입에 수류탄을 물고 적진속으로 뛰어들것입니다.》

만사람을 격동시키는 진정이었다. 전쟁로병들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비결없는 의리의 세계를 전하는 감동깊은 화폭이 아니던가.

전쟁로병들에 대한 의리를 혁명가라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도덕적품성으로, 사회주의 위업수행을 위해 나서는 문제로 중시하시는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세상을 울리는 이런 진정을 안아오실수 있는 것이다.

위대한 령도, 위대한 령도자가 있어 전쟁로병들의 삶이 빛나고 민족과 혁명권과 그의 안해 전순회녀성을 모르는 사람은 다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갈피갈피에 비친 찬란한 해발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들은 다는 알지 못한다. 언제나가 일꾼들은 난감한 일에 맞닥들었다.

가렬치절하던 전희의 나날 원수의 격연에서 중상을 당하고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오랜 기간 문필활동을 벌려온 영예로운 혁명전사인 그의 안해가 군복을 입고싶다는 소망을 제기했기때문이었다.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영예

도처에 중소형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전기력을 보게 하자

전력수요를 자체로 보장할 통이 큰 목표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이며 전력생산은 늘이는것은 오늘 나라의 경제전반에서 절대 양상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건적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자강도에서 중소형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자강도인민들을 강계정신의 창조자로 내세워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중소형발전소건설방침을 높이 받들고 자강도에서는 중소형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하여 전력수요를 자체로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일찍 우리는 자강도중소발전소관리국 일군들과 중소형발전소건설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자강도의 경제는 중소형발전소건설에도 힘을 넣어야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수 있다는것을 보

여주었다고 가르쳐주시었다. 현재 도의 중소형발전소운영실태는 어떠한가.

국장 공준: 우리 도에서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중소형발전소들은 도의 전력수요의 많은 몫을 맡고있다. 지금 도안의 모든 중소형발전소들에서 전력중산의 용량이 세차게 울리고있다.

우리 도에는 홍주청년1호, 2호발전소, 장강1호, 2호, 3호, 4호발전소, 화정군 부남청년발전소, 화정군민발전소, 화정군공1호, 2호발전소를 비롯한 계단식발전소들과 만포연하발전소, 우시1호발전소, 초산청년1호발전소 등 백수십개의 중소형발전소들이 있다. 이 발전소들의 총발전능력은 수만kW 나 된다.

우리는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주민세대에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 도안의 지방공업공장과 협동농장들의 동력문제를 해결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자강도

를 찾으실 때마다 중소형발전소건설에서도 자강도가 계속 전국의 앞장에 서야 한다고 가르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은근같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중소형발전소의 덕을 크게 보고있는 우리 도의 자랑찬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라고 귀한 결실이다.

기자장 립호영: 지금 도에서는 이미 건설한 중소형발전소들이 계속 큰 은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두고있다.

도중소형발전소건설지휘부에서는 중소형발전소들에서의 생산조직과 지휘를 정보화,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만포연하발전소, 우시1호발전소를 비롯하여 많은 중소형발전소들에서 첨단과학기술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발전설비들의 성능을 제고하고같은 물량을 가지고도 지난 시기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있다. 현재 도안의 중소형발전소들에서는 과학기술의 힘으

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경제적으로 벌어지고있다.

기자: 현재 도의 중소형발전소건설정황은 어떠한가.

국장 공준: 자강도는 강하천이 많고 해발고가 높아 중소형발전소건설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현재 도당위원회는 지도밑에 도중소형발전소건설지휘부에서는 2015년까지 15개의 중소형발전소들을 건설할 목표를 내세웠다. 이것은 대형발전소 2개와 맞먹는 발전능력을 새로 더 조성하는 것으로 된다.

건설지휘부에서는 선후차를 출세 정하고 올해중으로 5개의 중소형발전소건설을 끝내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있다. 홍주3호발전소, 초산청년2호발전소, 자성군 귀인발전소, 중강군 중상발전소, 전천발전소건설이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이 5개의 중소형발전소들이 완공되면 9천여kW의 발전능력이 조성되게 된다.

지금 돌격대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애로와 난관을 맞아싸우고나가며 자랑찬 로력적위훈을 떨치고있다.

설계연구소 실장 류재덕: 보다 큰 발전능력을 조성하는것과 함께 전기절약도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전력공업에서 절약을 못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것과 같다. 우리 설계연구소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우리식의 기억기식전선전력케를 개발하여 강계시를 비롯한 시, 군들의 주민세대에 널리 도입하고있다. 여기에서만도 현재 수만kW의 전력예비를 조성할 수 있다.

기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당의 중소형발전소건설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깊이 느낀다. 앞으로 자강도에서 더 많은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여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든든한 전진선 발전능력을 조성해 보도록 성과를 이룩하기를 바란다.

특파기자 동 세웅

경 제 힘 을 믿 고 떨 쳐 나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중소형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나라의 전기력을 적극 실현해나가야 하겠습니

원 군 에 서

언제를 쌓고 물길굴을 뚫으며 계단식으로 발전기설비를 일떠세워야 하는 발전소건설은 막대한 량의 자재와 물자, 로력 그리고 오랜 시일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군의 책임일군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소형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긴장한 나라의 전기문제를 풀자는것은 당의 방침입니다. 우를 쳐다보거나 남의 도움을 바라면서 앉아서 기다리거나 할것이 아니라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의 힘으로 군을 살기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나갑시다.》

책임일군들의 절절한 호소는 일군들의 심정에 불을 지졌다. 군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제 힘으로 기어이 군의 전기문제를 풀 결심을 안고 발전소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건설지휘부의 일군들은 전 투현장에 깊이 들어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고있으며 이신작적으로 건설자들을 위훈창조로 불러일으키고있다.

특파기자 리 은 남

를 힘있게 벌였다. 발전기설공사의 나날 굴착깊이가 대동강수위보다 낮아지면서 지하에서 초당 60m의 물이 뿜어져나왔다. 하지만 돌격대원들은 양수기 10여대를 설치하고 물을 푸면서 굴착 및 콘크리트기공을 중단없이 내밀었다. 치열한 격전의 날과 날이 흘렀다. 돌격대원들은 허리는 갈라속에도 주저없이 뛰어들며 순간도 좌절을 중단하지 않았다. 돌격대원들은 이런 결사의 투쟁의 날과 날을 이어 마침내 수만m의 토량을 처리하고 수천m의 콘크리트를 타입하였으며 수천m의 내외부미장을 끝낸데 이어 50여톤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 합과 기술로 제작된 발전기설비까지 설치하였다. 돌격대원들은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취수공수장에서든 혁신의 열정이 세차게 타올랐다. 취수공수를 맡은 화력건설련합기업소의 돌격대원들은 천년책임, 만년책임의 애국의 지안고 어려운 가름막과 기초 굴착 및 콘크리트공수공사를 힘있게 다그쳐 빠른 기간에 공사를 끝냈다.

결사관철의 정신은 언젠 건설장에서도 높이 발휘되고있다. 차호순, 고순호동무들 비롯한 려단의 일군들은 돌격대원들의 양양한 혁명적열의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화력건설련합기업소 전투적으로 벌리는 한편 언젠공

를 힘있게 벌였다. 발전기설공사의 나날 굴착깊이가 대동강수위보다 낮아지면서 지하에서 초당 60m의 물이 뿜어져나왔다. 하지만 돌격대원들은 양수기 10여대를 설치하고 물을 푸면서 굴착 및 콘크리트기공을 중단없이 내밀었다. 치열한 격전의 날과 날이 흘렀다. 돌격대원들은 허리는 갈라속에도 주저없이 뛰어들며 순간도 좌절을 중단하지 않았다. 돌격대원들은 이런 결사의 투쟁의 날과 날을 이어 마침내 수만m의 토량을 처리하고 수천m의 콘크리트를 타입하였으며 수천m의 내외부미장을 끝낸데 이어 50여톤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 합과 기술로 제작된 발전기설비까지 설치하였다. 돌격대원들은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취수공수장에서든 혁신의 열정이 세차게 타올랐다. 취수공수를 맡은 화력건설련합기업소의 돌격대원들은 천년책임, 만년책임의 애국의 지안고 어려운 가름막과 기초 굴착 및 콘크리트공수공사를 힘있게 다그쳐 빠른 기간에 공사를 끝냈다.

결사관철의 정신은 언젠 건설장에서도 높이 발휘되고있다. 차호순, 고순호동무들 비롯한 려단의 일군들은 돌격대원들의 양양한 혁명적열의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화력건설련합기업소 전투적으로 벌리는 한편 언젠공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새로운 대규모수력발전소들을 많이 건설하는것과 함께 지금 있는 발전소들을 잘 관리운영하여 전력생산을 최대한 늘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산군민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전력생산의 동용을 더욱 높여가고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발전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선행부문, 기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전력생산에서 혁

연 산 군 민 발 전 소 에 서

신을 일으키도록 적극 고무해 주었고있다. 특히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 있다.

리광남, 김북남동무를 비롯한 발전소의 일군들은 혁명군대의 지휘관처럼 전력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그들은 기술자들과 종업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철저히 하고있다. 발전소로 하여금 발전기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물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며 전력생산을 늘이도록 대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전력생산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큰 몫을 맡

고있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생산돌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김종호, 리기운, 안명일동무를 비롯한 기술자들과 종업원들은 발전기들의 장모보수를 빈틈없이 하면서 모든 설비작업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철저히 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있다. 한편 수차, 발전, 조종계통 등 전력생산의 기본계통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큰 힘을 넣고있다.

이들은 물자 곧 전기라든가 장마철철해를 미리막기 위한 사업도 빈틈없이 하고있다. 발전소에서는 지난해 장마철철해 막이전투에서 쌓은 경험에 기초하여 무늬이언체의 한쪽측면과 더 넓혀 물통과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예견성있게 내밀고 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김 현 일

발전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발전설비들에 대한 순회 점검과 표준작업을 책임적으로 하여 발전기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있다.

발전소의 기술자들도 전력중산의 예비는 기술혁신에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수위측정장치, 온도감시체계, 조속기의 자동화 등 여러가지 기술혁신들을 적극 받아들여 전력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장마철철해를 미리막기 위한 사업도 빈틈없이 하고있다. 발전소에서는 지난해 장마철철해 막이전투에서 쌓은 경험에 기초하여 무늬이언체의 한쪽측면과 더 넓혀 물통과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예견성있게 내밀고 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김 현 일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최후돌격전을

북창룡산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대규모발전소건설을 다그치는 것과 함께 중소형발전소건설을 전진선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있다.

충청각발전소 해도 20만m²에 달하는 발전소건설은 공사량과 규모에 있어서 실로 방대한 공사이다.

건설에 동원된 북창룡산발전소건설련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부단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헤쳐나오며 이미 수백m의 암력물길굴, 취수구, 발전기설, 조압수조, 배수공사를 끝냈다. 그리고 변전소공사와 송전선설비를 끝낸데 이어 2호 발전기의 조립 및 무부하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1호발전기조립과 언젠공수장을 마감한 데서 적극 내밀고 있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전기문제를 풀자면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과 중소형발전소건설, 이 두가지가 하나를 이루고 있어야 하며 하나를 건설하여도 당장 그 덕을 볼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작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발전소건설은 불도 가니마냥 끓어번졌다.

암력물길굴공사를 맡은 성천광산대, 통일광산대, 성천군대, 청남구대대의 돌격대원들은 대소한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앞선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빠른 공률, 연속발파를 들이대었다. 암질이 무른 조건에서 물길굴을 확장하고 퍼복해 야 하는 공사는 그야말로 돌격대원들의 신념과 의지를 검증하는 격전장과도 같았다. 동방을 세우며 수백m 전진하면 봉락되고 그것을 복구하고 전진하면 또다시 봉락되는 그 몇번... 지연의 도전은 엄혹하였다. 그러나 돌격대원들은 발전소건설의 돌파구를 기어이 열어나고야말 끝날은 일일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돌격대원들은 말그대로 한몸이 육단이 되어 불랑구간을 헤쳐나갔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결사의 의지를 안고 치열한 전투를 벌여 끝내 암력물길굴을 관통하는 자랑찬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제일 힘든 암력물길굴공사가 완공되자 함평남, 박영남동무를 비롯한 건설지휘부의 일군들은 취수구, 발전기설, 조압수조 등 대상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려 하였다. 발전소건설장에 비하여 열풍이 세차게 일었다. 발전기설공사를 맡은 화력건설련합기업소와 안주시군대, 평원군대대의 돌격대원들은 발전기설공작업전투

를 힘있게 벌였다. 발전기설공사의 나날 굴착깊이가 대동강수위보다 낮아지면서 지하에서 초당 60m의 물이 뿜어져나왔다. 하지만 돌격대원들은 양수기 10여대를 설치하고 물을 푸면서 굴착 및 콘크리트기공을 중단없이 내밀었다. 치열한 격전의 날과 날이 흘렀다. 돌격대원들은 허리는 갈라속에도 주저없이 뛰어들며 순간도 좌절을 중단하지 않았다. 돌격대원들은 이런 결사의 투쟁의 날과 날을 이어 마침내 수만m의 토량을 처리하고 수천m의 콘크리트를 타입하였으며 수천m의 내외부미장을 끝낸데 이어 50여톤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 합과 기술로 제작된 발전기설비까지 설치하였다. 돌격대원들은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취수공수장에서든 혁신의 열정이 세차게 타올랐다. 취수공수를 맡은 화력건설련합기업소의 돌격대원들은 천년책임, 만년책임의 애국의 지안고 어려운 가름막과 기초 굴착 및 콘크리트공수공사를 힘있게 다그쳐 빠른 기간에 공사를 끝냈다.

결사관철의 정신은 언젠 건설장에서도 높이 발휘되고있다. 차호순, 고순호동무들 비롯한 려단의 일군들은 돌격대원들의 양양한 혁명적열의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화력건설련합기업소 전투적으로 벌리는 한편 언젠공

를 힘있게 벌였다. 발전기설공사의 나날 굴착깊이가 대동강수위보다 낮아지면서 지하에서 초당 60m의 물이 뿜어져나왔다. 하지만 돌격대원들은 양수기 10여대를 설치하고 물을 푸면서 굴착 및 콘크리트기공을 중단없이 내밀었다. 치열한 격전의 날과 날이 흘렀다. 돌격대원들은 허리는 갈라속에도 주저없이 뛰어들며 순간도 좌절을 중단하지 않았다. 돌격대원들은 이런 결사의 투쟁의 날과 날을 이어 마침내 수만m의 토량을 처리하고 수천m의 콘크리트를 타입하였으며 수천m의 내외부미장을 끝낸데 이어 50여톤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 합과 기술로 제작된 발전기설비까지 설치하였다. 돌격대원들은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취수공수장에서든 혁신의 열정이 세차게 타올랐다. 취수공수를 맡은 화력건설련합기업소의 돌격대원들은 천년책임, 만년책임의 애국의 지안고 어려운 가름막과 기초 굴착 및 콘크리트공수공사를 힘있게 다그쳐 빠른 기간에 공사를 끝냈다.

결사관철의 정신은 언젠 건설장에서도 높이 발휘되고있다. 차호순, 고순호동무들 비롯한 려단의 일군들은 돌격대원들의 양양한 혁명적열의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화력건설련합기업소 전투적으로 벌리는 한편 언젠공

일찍 내가 황해남도물길공사장을 찾았을 때였다. 황해북도려단 상원군대대가 맡은 물길굴공사장을 돌아보는데 물길굴벽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돌격대원들의 이름이 쓰여져있는것이 유묘하게 안겨왔다.

사연을 묻는 나에게 대대장이 말하였다.

《우리 동무들이 자기 다짐작업을 한 구간을 조속중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을 써놓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쓰여진 이름, 나의 가슴에 세한 충격으로 울려번졌다.

누구나 이름을 쓴다. 학습장에, 자서전에... 인생의 자욱자욱마다 이름을 수없이 남기며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5점이 밝게 웃는 시험지에, 위훈을 전하는 대문만 한 속보판에서 자기 이름이 빛나기를 누누나 바란다.

하지만 보이는 이곳에, 머지않아 물이 흐르게 될 깊은 그 하나하나의 이름들과 더불어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우리 당의 구호가 더 눈부시게 안겨들었다. 이 물길굴로 세세년년 흘러드는 생명수를 마음껏 들이키며 부쩍부쩍 자랄 황남명의 황금어사도 금시 눈앞에 보이는 듯싶었다.

리현일, 박광준, 최경일, 한승성... 내에게는 그 이름들이 어디서나 빛나는 금문자로, 진주보석으로 소중히 안겨왔다.

본사기자 장 은 영

없이 후대들에게 물려줄 창조물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떠세워가시는 부강조국의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에 깨닫힌 망심을 바쳐가는 이 나라 아들딸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말없이 전해주는 물길굴벽의 이름들,

그 하나하나의 이름들과 더불어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우리 당의 구호가 더 눈부시게 안겨들었다. 이 물길굴로 세세년년 흘러드는 생명수를 마음껏 들이키며 부쩍부쩍 자랄 황남명의 황금어사도 금시 눈앞에 보이는 듯싶었다.

리현일, 박광준, 최경일, 한승성... 내에게는 그 이름들이 어디서나 빛나는 금문자로, 진주보석으로 소중히 안겨왔다.

본사기자 장 은 영

광강땅에 과일품종이 늘어나라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기 위하여서는 과수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조국의 복원, 고산지대인 광강땅에 사과, 배, 추리를 비롯한 과일품종들이 늘어나 이 고장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광강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산물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밭에서 만 과일을 먹을수 있게 하였는가 하는것을 생각해보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광강도에 과수시험장을 내오도록 은정같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고산지대에 품도순화된 과일나무들에서 따들인 과일들은 향기가 짙고 맛이 좋아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위해 공훈과학자 박사 부교수 최영화, 실장 황천일동무를 비롯한 광강도농업과학분원 연구사들과 도과학기술위원회 세기

일밖에 없던 광강땅에 오늘은 사과, 배, 추리, 살구, 앵두나무를 비롯한 7가지 수종에 30여가지 품종의 과일나무들이 자라고있다.

현재 광강도에서 과수재배면적은 수백정배, 과일나무는 수십만그루에 달한다.

과일나무재배를 위한 양묘장과 목축사업소들이 생겨나고 협동농장들에서는 과수작업반, 과수분조들이 새로 꾸려졌다.

광강도에서 생산된 과일나무모든은 도는 물론 장진, 부진, 랑림군을 비롯한 다른 도의 고산지대에도 옮겨지고있다.

지금 광강도의 많은 기업, 기업소, 공장과 가정에서는 구내와 집뜨락에 여러가지 과일나무들을 심고 가꾸어 그 덕을 보고있다.

실장 성기범동무를 비롯한 장동화실의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증류를 천천히 쓰지 않고 우리 나라에 흔한 연료로 공업로들의 가동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슬라크승화로에 원료와 연료배

술도입소 실장 강경주동무는 수년세월을 하루와 같이 이 지대에 맞는 과일품종을 얻어내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전 철 주

이면서 각종 설비들에 리용되는 배어링의 수명을 훨씬 늘일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된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제련소에서 여러 생산공정들이 만들어지는 새 기술혁신들이 현실에서 실지 은을 내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도 상당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제련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생산공정을 보다 현대화하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들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신 천 일

이면서 각종 설비들에 리용되는 배어링의 수명을 훨씬 늘일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된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제련소에서 여러 생산공정들이 만들어지는 새 기술혁신들이 현실에서 실지 은을 내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도 상당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제련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생산공정을 보다 현대화하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들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신 천 일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영웅전사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슴마다에 새겨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광혁 특보

스위스 이탈리아어지역공산당대표단 귀국
[정양 7월 30일말 조선중앙 통신]알레산드로 루치니 정치부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기술을 혁신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력갱생하는것이 진짜 자력갱생입니다.》

문명제련소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생산장성의 예비 기술혁신에서 찾고 연, 아연생산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제련소당조직에서는 누구나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새 기술의 주인된 자각을 안고 한가지 이상의 기술혁신

생산장성의 예비를 기술혁신에서 찾고

안을 내놓도록 조직적사업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제련소에서 생산장성의 예비를 기술혁신에서 찾고 연, 아연생산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제련소당조직에서는 누구나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새 기술의 주인된 자각을 안고 한가지 이상의 기술혁신

업무를 잘해나가고있다.

제련소에서는 최근에만도 가지는 기술혁신인들을 생산에 받아들여 큰 은을 내게 하고있다.

실장 성기범동무를 비롯한 장동화실의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증류를 천천히 쓰지 않고 우리 나라에 흔한 연료로 공업로들의 가동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슬라크승화로에 원료와 연료배

이면서 각종 설비들에 리용되는 배어링의 수명을 훨씬 늘일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된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제련소에서 여러 생산공정들이 만들어지는 새 기술혁신들이 현실에서 실지 은을 내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도 상당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제련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생산공정을 보다 현대화하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들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신 천 일

이면서 각종 설비들에 리용되는 배어링의 수명을 훨씬 늘일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된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제련소에서 여러 생산공정들이 만들어지는 새 기술혁신들이 현실에서 실지 은을 내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도 상당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제련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생산공정을 보다 현대화하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들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신 천 일

온 사회에 차넘치는 고상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도덕기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질서와 공동도덕을 잘 지키도록 하는것은 사회에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을 세우며 혁명의 전진투쟁을 고수하고 빛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문명건설의 새 력사가 자랑스럽게 펼쳐지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에 사업기풍과 일터에서 혁신을 일으킬뿐 아니라 혁명적이며 건전한 도덕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사람은 사회와 집단속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생활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사이에는 반드시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과 규범이 있다. 그것이 바로 레의도덕이다.

이러한 인간의 고유한 미덕이며 사람의 가치와 인격, 해당 사회의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이다.

시대와 레의도덕

사회적 세로며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에서 레의도덕을 잘 지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찍부터 동방레의지국으로 세상이 널리 알려졌을 우리 나라에서는 부모를 극히 존경하고 형제나 친척들사이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해하며의 례를 사는것을 가풍으로, 자랑으로 여겨왔다. 유구한 력사와 더불어 변천해 이어져온 이러한 아름다운 도덕기풍은 오늘날도 변함없다. 이웃들사이에서 지켜야 할 레의도덕이 있다.

개인별인 가정들로서 이루어진 개인생활에서 누구나 성실히 할가해야 하며 정성로써, 공로자들과 영예군인들을 존경하고 아레사람이나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참담히 이끌어주어 마을에 언제나 신뢰와 존중, 화목과 단합의 분위기를 흐르게 하여야 한다.

온 사회에 혁명적도덕기풍을 세우는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상하간의 관계에서 레의도덕을 잘 지키는것이이다.

상하간에 레의도덕을 잘 지키는것은 집단의 동지적단합을 이룩하고 혁명과업수행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웃사람은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아레사람을 잘 이끌어주고 따듯이 대해주어야 하며 아레사람은 웃사람을 보다 중요한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동지로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인민군대에서 발휘되고있는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평등일치의 미풍과 고상한 도덕을 양보하여야 하며 사들호상간 서로 존경하고 위해주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말과 행동을 겸손하고 레철바라게 하는것은 도덕기풍확립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말은 곧 사람이다. 사람의 정신도덕적상태와 수준은 말과 행동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말에서 항상 자기를 낮추고 상대

하며 제정된 규률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웃차림과 몸단장을 깨끗이 하는것은 자기자신을 위한 일일뿐 아니라 사회와 집단에 대한 레의의 표시로도 된다.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 이색적이며 비위생적인 옷차림이나 몸단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으며 우리 사회의 밝고 건전한 분위기를 손상할 수 있다.

객을 손수수단들과 리발소, 목욕탕, 식당 등을 리용할 때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보살피주어야 할 늙은이나 영예군인, 애기 어머니들에게 우선적으로 자리를 양보하여야 하며 사들호상간 서로 존경하고 위해주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말과 행동을 겸손하고 레철바라게 하는것은 도덕기풍확립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말은 곧 사람이다. 사람의 정신도덕적상태와 수준은 말과 행동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말에서 항상 자기를 낮추고 상대

방을 존중하며 행동을 무한히 겸손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 전화회話を 잘 지켜야 한다. 전화를 할 때에는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말을 주고받게 되므로 레의를 차리는 데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인사레에서도 우리 민족의 고유한 조신절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허리를 굽혀 하는 조신 절형식은 보기에 좋고 민족적 감성과 정서에도 맞을뿐 아니라 약속을 하는 남의 식의 인사레보다 위생적으로 깨끗한 고상하고 우월한 인사레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적 도덕의 리의 최고 화신인 신경애하는 인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일터와 가정, 거리와 마을마다 문명하고 건전한 도덕기풍이 더 활짝 꽃피어가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사회생활에서 도덕기풍 확립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명심하고 자신을 정신도덕적으로 끊임없이 수양하고 완성함으로써 사회주의 문명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리남호

화목의 뿌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정생활이 건전하고 행복하여야 사회생활전반이 명랑하고 활기있게 진행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요일 덕천시 역전동 37인민반 안경세동무의 집을 찾았을 때였다.

안경세동무의 어머니인 로금희녀성이 우리를 아늑하고 정갈하게 꾸려진 방안으로 안내하였다. 이때 소학교학생으로 전직되어 손자애가 방안에 달려나오며 《안녕하십니까.》 하고 허리굽혀 인사하는것이였다.

이 로금희녀성의 셋째아들이며 세대주인 슬리자동지처럼기쁘소 공업시험연구소에서 일하고있는 안경세동무와 아내 김금희동무도 인사를 하고나서 서둘러 우리를 반한 가운데로 이끌었다. 모두 자리를 잡고 앉은 후 손자애가 참 특독하고 레철이 밝다고 우리가

웃었다.

그들은 어려해전부터 저의 집을 찾으면서 더운 겨울이라, 추운 겨울이라 친척들의 심정으로 따듯이 돌보아주고있습다.

그들은 전생로병들이 조국을 한복숨바쳐 지켜냈기에 새 세대들의 오늘의 행복이 있는것이라고 하면서 저희 부부가 언제나 건강한 몸으로 락판에 넘쳐 생활하도록 여러가지 보양과 영양식품들도 안겨주고 혁명적인 노래도 불러주며 뜨거운 지성을 바치고있습다.

저희 부부는 이런 도덕의 리의 아름다운 화원을 마련해 준 어머니 우리 당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한생을 변함없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강그리 바쳐가겠습니다.

보통강구역 대보동 35인민반 풍 풍 길

덕천시 역전동 37인민반 안경세동무의 가정을 찾아서

침찬하자 로금희녀성은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학교에서 어떤것때소만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도덕을 지키고 레철을 알게끔 가정교양을 잘 하는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로인의 가정은 자식 네명에 손자손녀까지 합하여 모두 10명인데 로인 내외는 그들모두를 어려서부터 레철이 밝고 대바르게 키우기 위해 원심을 써왔다고 한다. 그는 한가정의 울타리에서부터 도덕기풍이 활짝 꽃피기 위하여 자식이, 부부사이 그리고 형제들사이의 정이 각별하게 되는것은 물론 가정의 화목이 곧 말은 일터에서의 성과로 이어져 자식들모두가 일터에서 혁신자로 떠날 때를 위하여 미리부터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맡은 바를 충실히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일수라고 하였다.

《그저 뛰이뛰이해도 현진이 엄마가 제일이. 막내며느리로서 어머니를 잘 모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시누이의 칭찬에 로금희녀성이 얼굴을 붉히며 서둘러 대답했다.

《안 언제든 누이의 정성에 따라살자 하고 늘 격정인데...》

은 방안에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함로 행복찬 가정이었다. 우리는 평범하고 소박해도 존경과 사랑, 화목과 믿음이 가득 넘쳐흐르는 한가정의 단란한 모습을 통하여 다시금 깨달을수 있었다. 레의도덕이야말로 화목의 뿌리이고 기초라는것을.

창녀미 거리와 집마다에서는 불빛이 흐르고있었다. 그 불빛들은 혁명적도덕기풍이 날로 활짝 꽃피는 사회주의제도의 품속에서 모두가 한가정, 한가족으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인민의 행복복된 모습으로 우리의 가슴에 정겹게 안겨왔다.

집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은 어른이 활것없이 《어머니, 그

간 편안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머니의 막내손자가 왔습니다.》 라고 저마음 깃속이 인사하며 방안으로 들어섰다. 안경세동무가 가지고온 식료품을 이 집의 주부인 로금희녀성이 안겨주며 이야기했다.

《그저 뛰이뛰이해도 현진이 엄마가 제일이. 막내며느리로서 어머니를 잘 모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시누이의 칭찬에 로금희녀성이 얼굴을 붉히며 서둘러 대답했다.

《안 언제든 누이의 정성에 따라살자 하고 늘 격정인데...》

은 방안에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함로 행복찬 가정이었다. 우리는 평범하고 소박해도 존경과 사랑, 화목과 믿음이 가득 넘쳐흐르는 한가정의 단란한 모습을 통하여 다시금 깨달을수 있었다. 레의도덕이야말로 화목의 뿌리이고 기초라는것을.

창녀미 거리와 집마다에서는 불빛이 흐르고있었다. 그 불빛들은 혁명적도덕기풍이 날로 활짝 꽃피는 사회주의제도의 품속에서 모두가 한가정, 한가족으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인민의 행복복된 모습으로 우리의 가슴에 정겹게 안겨왔다.

집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은 어른이 활것없이 《어머니, 그

본사기자 허명숙

무궤도전차에서 만난 사람

런듯에서 떠난 무궤도 전차는 평야를 향하여 경쾌하게 달렸다.

통성구역에 있는 어느 한 공장의 연구사 강성일동무는 무거운 손짐을 들고 자기 맞은편에 앉은 애기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머나! 가십니까?》

《영양역까지 갑니다.》

그러자 강성일동무는 마침이라는듯 이렇게 말했다.

《나도 그쪽방향으로 가는데 함께 갑시다.》

중점에서 내린 그는 애기 어머니를 도와 역기다림까지 짐을 들어다주었다.

고맙다고, 잘 가라고 인사를 나누며 헤어질 때까지는 너그러워 락판구역에서 사는 그가 다시 무궤도전차를 타고 되돌아가야 한다는것을 알수 없었다.

한없이 귀중한 조국을 지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싸우는것이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다.

그런데 전화를 붙들고 헤치며 조국을 지켜싸우는 전생로병들의 건강과 생활을 따듯이 돌보아주는것은 새 세대들의 숭고한 도덕의 리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날, 기념일을 비롯하여 때없이 저의 집을 찾으며 친혈육의 정을 부어주고있습다.

그 고마운 사람들속에는 만경대구역 팔골1동에서 사는 리영철동무와 평천구역 해운2동에서 사는 김명옥동무의 가정도

독자의 편지

제가 이렇게 편을 들게 된것은 저희들 전생로병부부를 위해 뜨거운 진정을 바치고있는 고마운 사람들의 소행을 전하고싶어서입니다.

한없이 귀중한 조국을 지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싸우는것이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다.

그런데 전화를 붙들고 헤치며 조국을 지켜싸우는 전생로병들의 건강과 생활을 따듯이 돌보아주는것은 새 세대들의 숭고한 도덕의 리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날, 기념일을 비롯하여 때없이 저의 집을 찾으며 친혈육의 정을 부어주고있습다.

그 고마운 사람들속에는 만경대구역 팔골1동에서 사는 리영철동무와 평천구역 해운2동에서 사는 김명옥동무의 가정도

혈육의 정

그들은 어려해전부터 저의 집을 찾으면서 더운 겨울이라, 추운 겨울이라 친척들의 심정으로 따듯이 돌보아주고있습다.

그들은 전생로병들이 조국을 한복숨바쳐 지켜냈기에 새 세대들의 오늘의 행복이 있는것이라고 하면서 저희 부부가 언제나 건강한 몸으로 락판에 넘쳐 생활하도록 여러가지 보양과 영양식품들도 안겨주고 혁명적인 노래도 불러주며 뜨거운 지성을 바치고있습다.

저희 부부는 이런 도덕의 리의 아름다운 화원을 마련해 준 어머니 우리 당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한생을 변함없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강그리 바쳐가겠습니다.

보통강구역 대보동 35인민반 풍 풍 길

돌보이는 대학생들

그 과정에 대학생들속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국가는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하고 조진한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문명국입니다.》

회천공업대학의 교정에는 언제나 밝고 건전한 도덕기풍이 차넘치고있다.

방 송림, 최 동 우 동 무 들 을 비롯한 대학청년동맹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에 보여주시던 레의도덕의 숭고한 모범을 대학 생활에서 해설해주시며 그들모두가 사업과 생활에서 레의도덕을 잘 지키도록 하고있다.

희천공업대학에서

그들은 대학의 녀교원들에게 축하의 인사와 함께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해마다 3.8 국제부녀절이면 볼수 있는 예스러운 풍경이였다.

김명영학생을 비롯한 컴퓨터 조종공학부의 학생들은 성의있게 준비한 꽃다발을 김혜경교원에게 안겨주었다.

70고개를 바라보는 로교원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고였다. 언제나 학과학습에 앞장서고

교원들을 존경하며 동무들사이의 레의도덕을 지키는데서도 모

범을 보이는 학생들, 오늘은 이렇게 꽃다발까지 안고 찾아온 그들은 보며 한생을 교단에 바쳐온 교육자의 보람과 긍지가 가슴가득 차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김혜경교원은 진정을 담아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고맙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갖춘 선군혁명의 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명명만은 병사마냥 힘있게 대답하였다.

《알겠습니다.》

그들의 힘찬 대답속에는 더더욱 문명해질 사회주의강국과 그 문명이 부끄러워하는 일이 없을지라도 대학생활이 떠메고나갈 내 조국의 앞날은 얼마나 밝고 아름다울것인가.

습 철 진

아름다운

방금전차에서 왔게 개었던 하늘에 어느새 멍장들이 밀려들더니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비를 그으려고 바삐 달려가는 사람들속에는 어린 손자애를 안고 뛰어가는 로인도 있었다.

그때 지나가던 현대의 승용차가 멎어서더니 운전

소낙비가 내리던 날

사자 소낙비다.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십니까?》

《영양역까지 갑니다.》

그러자 강성일동무는 마침이라는듯 이렇게 말했다.

《나도 그쪽방향으로 가는데 함께 갑시다.》

대학생과 주위에 서있던

다른 사람들의 권고속에 그 녀성은 자리에 앉았다.

녀성들을 존중하고 레의있게 대하는것 역시 문명인 인간의 초보적인 도덕품성의 하나라는것을 되새겨보게 한 그 대학생은 김일성종합대학 문명대학 학생 홍성일동무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모습

《할아버지, 여기에 자리가 있습니다.》

—무궤도전차안에서—

지하철도의 전동차안에서

손님들을 태운 전동차는 삼출역을 출발하였다.

애기어머니들과 로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그들속에는 한 녀성에게 자리를 권하는 대학생도 있었다.

《여기에 앉으십시오.》

《녀성이 아닙니까.》

무궤도전차에서 만난 사람

런듯에서 떠난 무궤도 전차는 평야를 향하여 경쾌하게 달렸다.

통성구역에 있는 어느 한 공장의 연구사 강성일동무는 무거운 손짐을 들고 자기 맞은편에 앉은 애기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머나! 가십니까?》

《영양역까지 갑니다.》

그러자 강성일동무는 마침이라는듯 이렇게 말했다.

《나도 그쪽방향으로 가는데 함께 갑시다.》

독자의 편지

제가 이렇게 편을 들게 된것은 저희들 전생로병부부를 위해 뜨거운 진정을 바치고있는 고마운 사람들의 소행을 전하고싶어서입니다.

한없이 귀중한 조국을 지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싸우는것이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다.

그런데 전화를 붙들고 헤치며 조국을 지켜싸우는 전생로병들의 건강과 생활을 따듯이 돌보아주는것은 새 세대들의 숭고한 도덕의 리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날, 기념일을 비롯하여 때없이 저의 집을 찾으며 친혈육의 정을 부어주고있습다.

그 고마운 사람들속에는 만경대구역 팔골1동에서 사는 리영철동무와 평천구역 해운2동에서 사는 김명옥동무의 가정도

혈육의 정

그들은 어려해전부터 저의 집을 찾으면서 더운 겨울이라, 추운 겨울이라 친척들의 심정으로 따듯이 돌보아주고있습다.

그들은 전생로병들이 조국을 한복숨바쳐 지켜냈기에 새 세대들의 오늘의 행복이 있는것이라고 하면서 저희 부부가 언제나 건강한 몸으로 락판에 넘쳐 생활하도록 여러가지 보양과 영양식품들도 안겨주고 혁명적인 노래도 불러주며 뜨거운 지성을 바치고있습다.

저희 부부는 이런 도덕의 리의 아름다운 화원을 마련해 준 어머니 우리 당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한생을 변함없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강그리 바쳐가겠습니다.

보통강구역 대보동 35인민반 풍 풍 길

돌보이는 대학생들

그 과정에 대학생들속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국가는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하고 조진한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문명국입니다.》

회천공업대학의 교정에는 언제나 밝고 건전한 도덕기풍이 차넘치고있다.

방 송림, 최 동 우 동 무 들 을 비롯한 대학청년동맹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에 보여주시던 레의도덕의 숭고한 모범을 대학 생활에서 해설해주시며 그들모두가 사업과 생활에서 레의도덕을 잘 지키도록 하고있다.

희천공업대학에서

그들은 대학의 녀교원들에게 축하의 인사와 함께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해마다 3.8 국제부녀절이면 볼수 있는 예스러운 풍경이였다.

김명영학생을 비롯한 컴퓨터 조종공학부의 학생들은 성의있게 준비한 꽃다발을 김혜경교원에게 안겨주었다.

70고개를 바라보는 로교원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고였다. 언제나 학과학습에 앞장서고

교원들을 존경하며 동무들사이의 레의도덕을 지키는데서도 모

범을 보이는 학생들, 오늘은 이렇게 꽃다발까지 안고 찾아온 그들은 보며 한생을 교단에 바쳐온 교육자의 보람과 긍지가 가슴가득 차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김혜경교원은 진정을 담아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고맙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갖춘 선군혁명의 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명명만은 병사마냥 힘있게 대답하였다.

《알겠습니다.》

그들의 힘찬 대답속에는 더더욱 문명해질 사회주의강국과 그 문명이 부끄러워하는 일이 없을지라도 대학생활이 떠메고나갈 내 조국의 앞날은 얼마나 밝고 아름다울것인가.

습 철 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이 한생을 가장 빛나게 살고 싶었기 보내자면 반드시 생애에 대한 혁명적관점을 가지고 혁명투쟁에 몰입해 나사야 합니다.》

은과군 강안협동농장 제11작업반 농장원이었던 김봉철동무는 지난 5월 27일 새벽 포전에서

중요한 가을에 이끄는 고결한 삶

숨을 거두었다. 중병을 앓는 몸이었지만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떠나지 않은 그의 모습은 사람들을 가슴을 울리고있다.

자신을 강그리 바쳐 그는 이 땅에 무엇을 남겼는가.

은과군 강안협동농장 제11작업반 농장원이었던 김봉철동무

두고랑, 세고랑을 매곤 하고다. 쓰러지려 애썼을때도 그 안해가 안타까와하고 작업반장이며 반원들이 부른당비서동무는 결이 있기만 해도 힘이 이었다고 하였지만 그는 자기 위치를 변함없이 대오의 앞장에 정하였다.

그런 김봉철동무였기에 이번 모내기전투를 앞두고 그 선봉공정에서 스스로 책임지고 나선것이였다. 썩어치기를 담당한 트락토르운전자 박광명동무와 함께 매일같이 새벽길을 함께 걷는도 바로 그때였다.

박광명동무가 트락토르를 몰아가자 김봉철동무는 삼을 들고 그뒤를 따랐다. 썩어치기는 흙먼 흙날을 고루 퍼면서 논이 높아진데는 깔고 낮아진데는 취올려 면을 반듯하게 맞추어나가는데 심장이 지기 시작했다.

그는 심장부리를 무뎠다고 힘겨 두드렸다. 조금만 참아주었다면, 조금만 더... 하고 생각하는듯 그의 얼굴에 안타까운 표정이 어렸다.

트락토르를 몰아오던 박광명동무가 본것은 이 광경이였다.

혹시 하는 생각으로 가속판을 밟다 밟으려던 그는 김봉철동무가 다시 평온한 기색으로 손바닥을 땅과 수평이 되게 퍼고 좌우로 천천히 갔는데는 바빠서 그만두었다. 그는 썩어치기의 질을 보장하라는 약속된 신호였것이다.

《썩어치기의 질이자 모개의 질이요.》

은과군 강안협동농장 제11작업반 농장원이었던 김봉철동무

그가 하던 말이 생각나 박광명동무는 운전대를 더욱 오스려지게 틀어잡았다. 김봉철동무의 결을 지나는데 그의 얼굴에 명망들이 내몰렸것이었다.

《그 허리춤에서는 손전지가 데구르렀다. 눈썹까지 작업에 필요한 삼과 같은 밧이들을 밝히는 손전지는 김봉철동무가 늘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것이었다.》

《손전지에 눈길미 미치자 박광명동무는 어제도 부른당비서가 모뜨기작업을 하느라 자정이 넘도록 일하였다는 생각이 났다.》

《썩어치기가 끝나면 어떻게 하나 쉬게 해야지 안되겠어.》

《그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을 때였다. 뒤에서 철썩하고 지렁이치는 소리가 났다. 박광명동무는 흙칠 뒤를 돌아보았다.》

《부른당비서동무!》

《김봉철동무는 이렇게 갔다... (거짓말이다!)》

《그가 포전에서 뜻밖에도 숨을 거둔 사실을 알았을 때 작업반원들은 누구나 이렇게 부르짖었다.》

《어제까지 하던이 포전, 저 포전을 썩어치면 넘나들며 모내기 때 펼쳐나간 농장원들을 적극 고무한것이다. 그가 숨어서 취어준 당비서가 주머니속에 대한 남이었는데, 어제 낮 휴식때에 그가 전드러지게 불렀다. 《분노농사 꽃이 피네》 노래의 가락이 아직도 귀가에 생생한데 그 불같은 심장이 고통을 멈추었다는것이 정녕 믿어지지 않았것이었다.》

《훈훈은 삼을 총장처럼 비껴던

사회주의협동별로 가자!

올해 53살인 김봉철동무는 19년전에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자원전출한 사람이다.

《스무해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시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크나큰 충격속에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김봉철동무도 생각이 났었다.》

《그가 가슴에 아파서 새겨졌을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까지 지평이 길은 절이서 험한 포전길에 걸으니 어머니의 험한 모습이었었다. 이 땅에 무르익은 한포기의 곡식, 한알의 낱알에 수렁님의 심혈과 로고가 깃든줄을 깊이 생각지 않고 무심히 밭을을 들 한 한 자신이 민망스러웠다.》

겨레의 통일을 향해 전행하는 전진대진들에게 차례를 짓기 위하여!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보고
혀바닥 건사를 잘해야 한다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서기국 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최근 피괴국방부 장관 한민구가 우리 언론과 체제에 도전하는 망언을 함부로 늘어놓는 것과 관련하여 30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070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최근 남조선에서 한민구라는 늑대라 한마리가 피괴국방부 장관이랍시고 쫓아대는 게소리가 세상사람들의 조소거리로 되고있다.

얼마전 그 불쌍하게 생긴 개상통을 텔레비전화면에서 들어온 한민구는 농가의 뒤간 덮개처럼 생긴 입을 너그러우며 그 누구의 《도발》 명령을 늘어놓다 못해 《체제의 생존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잠꼬대같은 소리를 내걸었다.

최근의 정상회담 로켓발사훈련에 화들짝 놀라 잔뜩 겁이 질린 상편을 해가지고 피괴국군사령관이라든가 황황히 쫓아다니는 미국산 전이 쓰다버린 고철덩어리 불과한 몇기의 미사일을 어루삼으며 《북의 어떤 표적도 타격할수 있게 준비하라.》고 비관장을 들이쳤다.

연평도에 개비라가 돌아온 놈의 추태는 그야말로 더 가관이다.

집승도 한번 빠졌던 합정은 피해 간다고 했는데 이놈은 한강 들짐승 보다는 못한 추태이다.

피괴합동참모본부의 장차리에 들

어앉아있을 당시 연평도에 쏟아져내린 우리 군대의 정벌의 불소나기에 혼쫓이 나 몰방에 던져진 메기새끼처럼 숨넘어갈듯한 입만 쩡쩡 다시 던져가 한민구이다.

그로 하여 임기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나뻐버렸던 한민구는 《국회》로 인사청문회라는데서 또 《역》을 특유의 보고 진땀까지 뺐다고 한다.

결국 연평도라는 말만 들어도 아레타리를 떠는 한민구는 청문회에서 《앞으로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겁기를 부려 보수주먹쟁이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겨우 국방부 장관 병거지를 쓰게 되었다.

그리고 청와대로부터 《순 미국산 총련계폭을 목에 걸자마자 연평도에 나라이 천둥소리에 놀라 개우리에 들어박혀 공중대는 수개처럼 뒤에서 도발원점과 지원세력, 뒤쪽 세력까지 응징해야 한다.》고 주먹질하는 추태를 부리었다.

그야말로 민중이 속대 오른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꼴은 참으로 보기조차 구차스럽고 민망스럽기 그지없다.

그때도 명쾌히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초보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버리지는 존재이며 어떤것이 할 말이고 못할 말이냐 하는것들은 가릴줄 알고 주둥이를 놀려야 하지 않겠는가.

음직하기만 하면 제놈의 머리가 우박처럼 쏟아져내릴 우리 군대의 로

전쟁의 포화가 멎지도 반세기 가 훨씬 지났지만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미국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무력을 촉박하면서도 조선의 현존인 미군이 조선반도안정을 항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과편치하게도 지난 조선전쟁을 도발한 전범죄를 합리화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피해자를 정당화하기 위해 황당한 꾀변을 내들고있다.

미국은 이전 남조선감정 미군사령관들을 내세워 《유엔군사령부》가 미국남조선 《연합군사령부》와 남조선감정 미군과 함께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다는 《유엔군사령부》에 대해 유엔도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 워니 하는 소리를 늘어놓고있다.

미국이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령부》존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뻔하다. 미국의 전략적 의도는 《유엔군사령부》를 아시안태평양지역을 군사적으로 관할시켜주는 아시아판나토로 전환시키자는 것이다. 미국은 새 국방전략작성을 전후하여 《유엔군사령부》를 《다국적연합군》로 둔갑시키는데 적극 달려들고 있다. 그에 따라 《유엔군사령부》 성원국들이 미국의 합동군사원수에 참가하고있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조선문제를 국제화시킨 그대를 방불케 한다. 미국은 전 《연합군사령부》 회의실의 조선전쟁참전국기발사관에게 참전국도 아닌 노르웨이, 단란트리에 이어 얼마전에는 이탈리아기발을 빼앗기게 시켜놓는 추태까지 부렸다. 《유엔군사령부》와 정전기구가 살아있는것처럼 세상을 기만하고 유

우리의 서슬푸른 총창이 노리고있다는것을 잊지 말라

미친개의 사등뼈를 분질러놓겠다

최근 미국놈들이 우리 인민군대의 자위적인 로켓발사훈련을 두고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면서 목이 쩡쩡 고아대자 덩달아 피괴국방부 장관 한민구까지 나서서 그 누구에 대한 《타격》과 《응징》을 제쳐냈는데 정말 피괴들이 노는 꼴이란 눈뜨고 못보겠다.

장관차리에 올라다다마 사건의 비위를 맞춰가며 제 죽을 줄 모르고 마구 개발발을 늘어대는 한민구적의 망동을 볼수록 손웃음이 나갈뿐이다. 지비우먹은 늑다미미친개의 헛날배에 귀를 기울일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지만 미국의 노리개질이나 하는 한민구가 감히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는데 대해서는 절대로 참을수 없다.

우리는 지금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미제와 피괴적제당파의 최후결산의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함부로 모독하고 시비중상하는자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든지 지푸라개라도 찾아 그 누구비한 정벌을 내릴것이다.

위대한 백두령장들의 승하에서 자라난 우리 혁명강군은 절대로 빈발을 모른다. 한다면 하고 일단 담쟁기면 뼈도 주릴수 없게 무자비하게 철저히 짓

미친개의 사등뼈를 분질러놓겠다

개는것이 우리의 기질이고 본때이다.

미국의 개노릇을 하는 한민구를 비롯한 피괴적무리들을 똑바로 세겨들으라.

구린나나는 아가리로 신성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또다시 모독한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 군대의 무자비한 정벌의 불소나기가 내놈들의 대가

어디다 대고 감히 현수작질인가

한민구가 피괴국방부 장관의 병거지를 뒤집어쓰자마자 그 무슨 《도발원점, 지원세력, 지원세력을 응징》하겠다고 골갈 현수작질하는데 가스통이 그지 없다. 낫짜부터 총살기 짝이 없는 늑다미미친개 코흘리개시절 부터 불장난질을 즐겼던 망나니라고 하지도 정도가 있어야 하지 않는다.

우리의 고마운 사회주의제도 두고 감히 《생존을 각오》하라는 워니 하고 떠들어댔는데 이따위 팔사둥이손개가 어디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 것이다.

저들이 하늘처럼 믿는 미국놈들도 어찌지 못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한갓 식민지피괴와 불과한 제놈이 도대체 뭐라고 《생존》이니 워니 하며 현수작질인가. 이따위 미친개가 천원천체 하고 그 잘난 장관자리를 통상인듯 타고앉아 우리

《유엔군사령부》해체와 남조선의 요구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하루빨리 해체하고 남조선감정 미군을 철수시키는것은 선진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온 세계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는 조선반도긴장국화와 전쟁위협조정의 앞장에 바로 《유엔군》의 탈을 쓴 남조선주둔 미군이 있기때문이다. 남조선에서 침략의 현존인 미군이 조선반도안정을 항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과편치하게도 지난 조선전쟁을 도발한 전범죄를 합리화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피해자를 정당화하기 위해 황당한 꾀변을 내들고있다.

미국은 이전 남조선감정 미군사령관들을 내세워 《유엔군사령부》가 미국남조선 《연합군사령부》와 남조선감정 미군과 함께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다는 《유엔군사령부》에 대해 유엔도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 워니 하는 소리를 늘어놓고있다.

미국이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령부》존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뻔하다. 미국의 전략적 의도는 《유엔군사령부》를 아시안태평양지역을 군사적으로 관할시켜주는 아시아판나토로 전환시키자는 것이다. 미국은 새 국방전략작성을 전후하여 《유엔군사령부》를 《다국적연합군》로 둔갑시키는데 적극 달려들고 있다. 그에 따라 《유엔군사령부》 성원국들이 미국의 합동군사원수에 참가하고있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조선문제를 국제화시킨 그대를 방불케 한다. 미국은 전 《연합군사령부》 회의실의 조선전쟁참전국기발사관에게 참전국도 아닌 노르웨이, 단란트리에 이어 얼마전에는 이탈리아기발을 빼앗기게 시켜놓는 추태까지 부렸다. 《유엔군사령부》와 정전기구가 살아있는것처럼 세상을 기만하고 유

벌거벗은 미국에 경고한다

규탄배격받는 이스라엘

이란의 무성 대변인이 20일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스라엘이 가자지대에서 남너로소를 가리지 않고 마구 살해하고있는데 대해 단죄하고 그는 이란정부는 침략행위를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보내며 유엔안보회의의 결의안인 살인만행에 대해 절대로 침묵을 지키지 않을것이라고 다시금 강조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대량살육만행을 중지시키기 위한 즉시적

수십년전 력사의 이기속에 깊숙이

수십년전 력사의 이기속에 깊숙이 은 계시었던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1950년대 조선전쟁이후 남조선너성들을 상대로 감행된 미군의 위안부범죄사건이다. 이에 대해 미군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은 미군의 요구에 따라 남조선피해정부의 묵인방조하에 벌어졌다고 까뻐졌다.

백년적죄 미제에 대한 치욕은 적개심으로 피가 끓고있다. 돌이켜보면 해방의 기쁨에 넘쳐있던 우리 겨레를 도둑내고 민족의 머리가 온 전쟁의 화화를 들끓은 미국이다. 《북조선의 78개 도시를 지도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떠벌이면서 미제침략군이 들이댄 무자비적인 폭력과 학살만행들은 동서고금의 력사에 그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것이였다. 로동당원이라고 하여 눈알을 뽑고 심장을 도려내고 사지를 찢어죽였고 열성농민이라고 하여 머리에 못을 박고 몸으로 커서 죽었으며 제놈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최후로 코를 꿰어 끌고다니다가 광병으로 내리쳐 죽였다.

최근 주된 미제살인귀들에게는 너성이라고 레가 되지 않았다. 산후 2주 일밖에 안되는 산모에게서 갓난아이를 빼앗아 바닥에 내놓고버리고 그자리에서 불간하였는가 하면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의 딸을 통욕하는 추악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온몸을 발가벗겨 거리에 끌어내고 《발갱이제집》, 《녀맹원정》, 《인민군대의 처》라고 하면서 야수적으로 고문하고 짓가슴과 국부를 도려내며 죽이고도 성지치 않아 집단적으로 생매장하고 성지치 않아 처넣어 죽였다. 북과 남 할것없이 가는 곳마다에서 미

남조선주민시체 남측적십자사에 인도

지난 7월 27일 아침 황해남도 용진군 대거리와 바다가 솟아서 남조선주민들이 보이며 확인되었다. 남조선당국에 확인된 시체는 남조선당국 1구가 발견되었다. 번사체에 소지되어있던 주민

남조선사회의 멸시와 패대속에 사라져가는것은 참으로 통분하고 격분스러운 일이다.

더우기 스쳐보낼수 없는것은 범죄적사실에 대한 미국의 태도이다. 미국방정대변인은 성명매, 인신매매 등 모든 인권유린을 반대하는것이 미군의 립장이며 사들의 진가에 대해 남조선주둔 미군에 문의하라는 식으로 몸배기를 하고있다. 남조선주둔 미군은 그들대로 인권유린이 미국의 가치관과 향련될수 없다는 피폐한 수작을 늘어놓으며 남조선당국에 책임을 떠밀고있다. 미제의 천인공노할 죄악의 흔적이 어디나 력력하고 그 피해자들이 생존해있는 땅에서 위대도 어울리지 않는 《인권중중》을 외쳐대며 안인보살하는 미국의 처사는 아메리카식인종후대의 과편치성을 드러낸 적면하장자의 것이다.

과편치성은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이면서도 세계인권체관관행세를 하며 돌아서는 미국이 꼭 들어맞는 징표이다.

원래 미국은 인권이란 말자체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는 나라이다. 너성문제를 하나 놓고보아도 그렇다. 약육살육의 생존본능이 틀러로 되어버린 미국에서 너성들에 대한 폭행은 레사로온 일로 되어 있다. 지난해 4월에 이 나라에서 발표된 조사자료에 의하면 성폭행범죄로 매 일 6만 7000명 이상의 너성들이 피해를 입고있다. 오하이오주에서 52살난 범죄자가 10년동안이나 3명의 너성을 쇠사슬과 바줄로 묶어 자기 집 지하의 옥중에 가두어두고 성폭행을 가한 사실이 사회에 알려져 만사물을 아연실색케 한것은 그리 먼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자유의 너성상징에